

노인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18.11.20.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의 대
폭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
티케어)(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령자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 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 호로 추정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약 14만 호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 사회·노인복지관, 종합재가센터 등과 연계하여 케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양한 케어 안심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사업과 도시재생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의 안전과 독립생활을 위한 집수리 실시

현관 문턱 제거, 욕실·주방 개보수 등 노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이 진행된다. 일상생활 동작(웃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 약 27만 세대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병원·시설 퇴소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를 우선 지원한다.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융합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 돌봄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의 모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